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대외협력사업부	성명	한덕훈	직급	연구위원
	소속	대외협력사업부 국제개발협력센터	성명	임해주	직급	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해양수산 학연 연구 사업 (FAO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협력)」					
출장기간	2023. 11. 25.(토) ~ 2023. 12. 2.(토) (6박 8일)			출장지	모로코 탕헤르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11.25 (토)	한덕훈 연구위원	부산 → 인천	이동		KTX 및 공항철도 이용
		임해주 연구원	부산(17:50) → 상하이(18:20)	이동		FM0830
	11.26(일)	한덕훈 연구위원	서울(00:55) → 암스테르담(07:15)	이동		KL0856
			암스테르담(12:25) → 파리CDG(13:45)			KL1233
			파리ORY(19:40)→ 탕헤르(22:25)			AT0667
		임해주 연구원	상하이(00:05) → 파리CDG(07:35)	이동		AF0111
	파리ORY(19:40)→ 탕헤르(22:25)	AT0667				
	11.27(월)	탕헤르		<교육 1일차> ● 오전/ 08:30~13:00 - 모로코 청색 경제 : 성과와 전망 -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 도시와 항구 협력의 중요성 - 도시 어항 관리의 주요 과제와 전망 - 공유공간의 최적화 방안 ● 오후/ 14:00~18:00 - 어항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 필드 트립 : 탕헤르 항구 및 어촌		
	11.28(화)	탕헤르		<교육 2일차> ● 오전/ 09:00~13:00 - 오염 관리 문제 해결 : 소음, 조경, 수질 - 어항의 사회적 과제 해결 : 문화적 통합과 성별 ● 오후/ 14:00~18:00 - 항만/어항 도시 퀴즈 - 조별 활동 wrap-up - 필드 트립 : 탕헤르 메드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출장일정	11.29(수)	탕헤르	<p><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09:00~13:00 -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기추진 활동 정리 및 향후 계획 수립 <p><관계자 면담 및 네트워킹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15:00~17:00 - FAO 관계자 면담 -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사업 향후 로드맵 논의 - 네트워킹 구축 활동 	
	11.30(목)	탕헤르(13:25) → 마드리드(14:50)	이동	AT5309
		마드리드(23:10) → 인천(+1)(19:54)	이동	KE0914
	12.1(금)	인천	인천 1박 (도착 지연에 따른 체류 불가피)	
	12.2(토)	김포(08:00) → 부산(09:05)	이동	KE1807
출장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일부 일정 변동에 따른 수행계획 변동 외 계획된 출장 목적 모두 달성 ○ 주요 성과 - 한국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국내 어항 개발 방향 및 해외 어항개발협력 노력 및 추진 사례 공유 - 각 권역별 전문가들과 네트워킹 구축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 성과 활용 계획 - 각 권역별 워크숍에 지속 참여하여 FAO 및 관계자들과 성과 공유 및 확산 예정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Blue Port Initiative, BPI) 개요 - 어항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기여 - 선진국에는 어항의 가치 재발견을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에는 어항을 거점으로 어업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의미를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수산 가치사슬을 향상 ○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Blue Port Initiative, BPI) 워크숍 추진 경과 - '21년부터 FAO 주도로 시작된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워크숍이 시작됨. - '22년부터 KMI 한덕훈 연구위원이 전문가 그룹으로 활동하여 한국의 국·내외 어항 개발 협력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가이드 라인/로드맵 도출 및 '21-'22 반기 보고서 작성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성과 확산에 기여 중임. - 유선 회의로 진행된 기존 워크숍과 달리 금년은 대면으로 워크숍 진행되어 참석자 간 심도있는 논의 이어감. ○ 일정 변동 - KE0914(마드리드→인천) 도착 지연에 따른 연결편(인천→부산) 탑승 불가로 인천에서 1박 후 익일 KE1807(김포 → 부산)편으로 이동 불가피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A))

업무유형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업무①	11.27.(월) 교육 1일차
수행계획	<p>□ 교육 1일차(08:30~18:00)</p> <p>-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교육 참가), 임해주 연구원(교육 참가)</p> <p>- 아젠다</p> <p style="padding-left: 20px;">[오전 : 강의+포럼/ 08:30~13:00]</p> <p style="padding-left: 40px;">· 모로코의 청색 경제 : 성과와 전망</p> <p style="padding-left: 40px;">·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p> <p style="padding-left: 40px;">· 도시와 항구 협력의 중요성</p> <p style="padding-left: 40px;">· 도시 어항 관리의 주요 과제와 전망</p> <p style="padding-left: 40px;">· 공유공간의 최적화 방안 : 효율적인 계획 수립 전략</p> <p style="padding-left: 20px;">[오후 : 강의+토론/ 14:00~18:00]</p> <p style="padding-left: 40px;">· 어항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고취</p> <p style="padding-left: 40px;">· 필드 트립 : 탕헤르 항구 및 어촌</p>
수행결과	<p>□ 교육 1일차 내용</p> <p>[오전]</p> <p style="padding-left: 20px;">○ 모로코의 청색 경제 : 성과와 전망</p> <p style="padding-left: 40px;">- 모로코 청색 경제 관련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해 국제/지역/국가 수준에 맞춰 로드맵을 형성하였음.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알제리, 리비아, 몰타, 포르투갈 등 서부 지중해 지역 내 국가들과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청색 경제 실현을 위해 WestMED 이니셔티브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중해 국가와 함께 양식업 역량 강화, 해양 오염 방지, 연안관광, 청색 어항 등의 영역에서 청색 경제를 위한 협력 중임. 모로코는 FAO의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참여국으로 국제적 노력에 동참 예정임.</p> <p style="padding-left: 20px;">○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p> <p style="padding-left: 40px;">- 항구(항만)는 상품의 유통을 위한 창구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항구와 도시 사이에 가치 사슬을 창출하는 청색 경제 주요 동인임. 특히, 소규모 어업, 식품 안전, 인프라 및 전략 등을 고려하여 어민과 국제 공동체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항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업을 강화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접근법을 개발 중임.</p> <p style="padding-left: 20px;">○ 도시와 항구 협력의 중요성</p> <p style="padding-left: 40px;">- 항구 도시는 세계 경제 흐름을 무역과 운송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구현한 곳으로, AIVP는 항구 도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지역사회, 항만당국,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 중임. 실례로 스페인 세비야 신시가지 마스터 플랜 수립, 스페인 파사리아 항구 도시 계획 수립, 튀르키예 항구 도시 지진 구호 활동, 아일랜드 더블린항 실업자 대상 기술교육 등을 제공함. 이는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고, 항만 도시 시민의 소속감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부가가치 증가 등에 기여함.</p> <p style="padding-left: 20px;">○ 도시 어항 관리의 주요 과제와 전망</p> <p style="padding-left: 40px;">- 인도네시아 비통 지역은 지역내총생산의 50% 이상이 어업과 수산업 가공 분야로 비통 어항은 해당 지역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지님. 청색 경제 실현을 위한 어항 관리의 주요 도전 과제로 깨끗한 에너지원 제공, 수산물 품질 검사, 선박 증명서 발행, 수산물 인증 제도 등이 존재함.</p> <p style="padding-left: 40px;">- 아르헨티나는 청색 어항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르헨티나 재활용 프로그램' 실시, 파타고니아 어업 연구 개발 환경 센터 구축 등의 활동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도시 어항 관리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p>

○ 공유공간의 최적화 방안 : 효율적인 계획 수립 전략

- 항만의 성공 핵심 기준으로 물류/컨테이너 물동량을 흔히 생각하나, 다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정학적 관점 등을 반영하여 항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벨기에 앤트워프의 사례가 항만과 도시 경제를 연결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항만 배후지에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 중임.

- 나미비아 항만청(남포트)은 ESG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북항·남항·어항 등의 개발 계획을 로테르담 항만청과 협업하여 수립함. 세부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항만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항만과 도시 공동체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오후]



수행결과

○ 어항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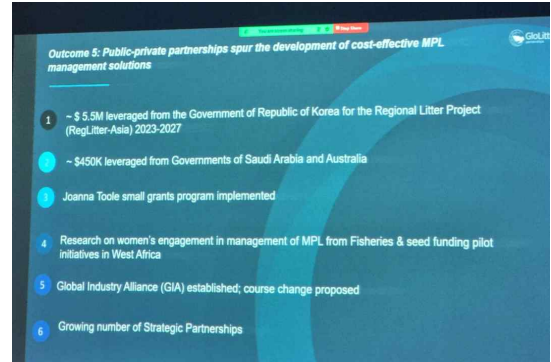
- Forum Oceano는 포르투갈의 청색 경제 클러스터로, ESG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여 청색 경제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해양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함. 디지털화, 탈탄소화, 원형화의 조합이 ESG 청색 경제의 주요 핵심 요소로 정의하며, 스타트업 기업 및 EU 등과 협업을 통해 벨류 체인을 조성하여 청색 경제를 이끄는 선구자 역할을 기대함.

- 리스본항의 주요 전략적 목표는 1) 물류 체인의 효율성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통한 배후 지역 확장 2) 청색 경제 클러스터 형성 3) 친환경적이고 탄력적인 항만 개발 4) 항만-도시 관계 강화 5) 국제 해상관광에서 리스본항의 역할 강화임. 청색 성장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청색 경제 중심 해양 캠퍼스 운영, Forum Oceano와의 혁신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세부 목표 수립함.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드 트립 : 탕헤르 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탕헤르 어항 공동어판장 방문하여 운용 방법, 인프라 구축 상태 등을 확인함. - 전자입찰시스템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입찰 방법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 학습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업무②	11.28.(화) 교육 훈련 참가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2일차(09: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발표 및 토론자, 교육 참가), 임해주 연구원(교육 참가) - 아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전 : 강의+토론/ 09: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 관리 문제 해결 : 소음, 조경, 수질 [오후 : 강의+토론/ 14: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구의 사회적 과제 해결 : 문화적 통합과 성별 <한덕훈 연구위원 발표 및 토론> · 필드 트립 : 탕헤르 메드
수행결과	<p>[오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 관리 문제 해결 : 소음, 조경,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구는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허브로 도시와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소음, 해양생태계 파괴, 쓰레기 관리, 도시 경관 등의 환경적 문제 또한 직면해 있음. 스페인 비고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어항이자 물동량 기준 세계 상위권인 운송 항구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오염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험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 - IMO는 해운 및 수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감소시켜 해양 및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존에 대응하고자 '20년부터 FAO와의 협업으로 5개 권역 30개 국가 대상으로 GloLitter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또한, '23년부터는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둔 RegLitter 프로젝트를 한국 해양수산부(550만불)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및 호주 정부(45만불) 등의 지원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인식 확대, 협력국 대상 법적·정책적·제도적 개혁, IUU 어업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국가 규제 개혁 등을 목표로 수행해 나가고 있음.

- 니카라과 푸에르토 코린토항은 파나마 운하, 미국 서부, 멕시코, 아시아, 남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을 통과하는 주요 해운선의 중앙 아메리카 지역의 교통의 요지로, 지속가능한 운송을 위해 국제, 환경, 사회 및 항만 보안 표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항구와 도시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 중임. 그 결과, 코린토항은 세계적으로 안전한 항구로 IMO의 인증을 받았으며, 국가 청정 생산 부문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부문 우수상과 미국 청정 생산 재생 에너지 부문 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도출함.



[오후]




○ 항구의 사회적 과제 해결 : 문화적 통합과 성별

- 항구 개발 생애주기에 따른 항만 개발 과정에서는 생물 다양성, 지역 사회, 경제 등의 이슈가 동시 다발적으로 수반되기에 생태계 보전을 지속가능성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이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계자 대상 적절한 직업 훈련 교육 제공 등을 통해 청색 직업과 기술 등이 생태계 보전이라는 대전제 안에서 환류가 될 수 있어야함.

- FUNDAMAR는 어업 분야에서 고용주와 노동자 간 동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최초의 비정부 및 비영리 기관으로, 어패류 채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됨. 주요 활동으로 1) 산업 보건 안전 분야 연구와 인식 캠페인 활동(직업 건강 및 안전) 2) 기회균등 및 사회적 경제적 가치 관련 사업 추진(사회적 경제와 양성 평등) 3) 교육을 통한 유·무형 유산의 가치화 및 경쟁력 향상 사업 추진(홍보 및 교육) 4)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다분야에서 사업 추진(지속가능성)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국내·외 어항과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제고하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임.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해양수산부 주도 하에 국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300개소의 어촌에 총 3조원을 투자하여 경제·생활·안전 기반을 구축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추진 중임. 또한, ODA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어항 개발협력 계획 수립 연구('19~'20), 세네갈 어항개발 타당성 조사('21~'22), 가나 여성 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강화사업('23~) 등을 진행함. (※ 한덕훈 연구위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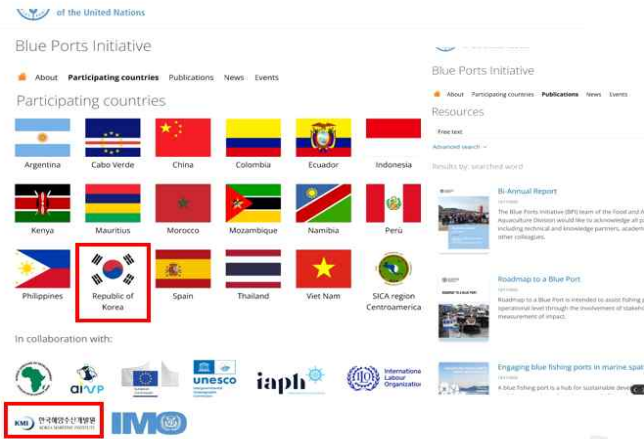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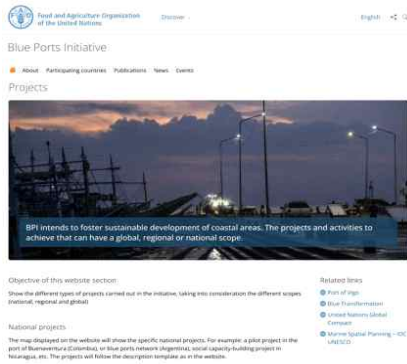
수행결과	<p>○ 항만/어항 도시 퀴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롤플레이 활동을 통해 팀(로지스틱스, 항만청, 어민)을 나눠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p>○ 필드 트립 : 탕헤르 메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역 관문인 지브롤터 해협에 위치한 탕헤르 메드항은 '07년 운영을 시작하여 '22년 기준 세계 해상 연결 지수 19위('07년 84위), 컨테이너 항만 성과지수 4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 최고의 항구(항만)로 성장함. - 탕헤르 메드항과 주변 산단을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어 르노, 아디다스 등을 포함한 약 1,2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배후 지역에 입주하는 등 민간 투자 유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  
업무③	11.29.(수) 09:00~13:00 워크숍 참가
수행계획	<p>□ 워크숍(09:00~13: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워크숍 참가), 임해주 연구원(교육 참가) - 아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기추진 활동 정리 · 향후 계획 수립
수행결과	<p>□ 워크숍 내용</p> <p>○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기추진 활동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부터 FAO 주도로 추진된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는 '23년 기준 한국,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등 약 20여개 국가가 참여 중이며, 네트워크 구축, Guidance 및 로드맵 수립, 역량강화 워크숍 제공, 홍보 활동 등의 영역에서 업무를 추진함. - 경제·환경·사회 분야 워킹 그룹을 형성하여 온라인을 통해 목적, 목표, 도전 과제 등 지속적으로 논의함.

○ 향후 계획 수립

-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홈페이지 제작, 뉴스레터 발간, SNS 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에 대해 논의함.



BPI Web site



수행결과



업무④ 11.29.(수) 14:00~18:00 FAO 관계자 면담 및 어촌 어항 전문가 자문 회의

수행계획

□ FAO 관계자 면담(14:00~15: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주재), 임해주 연구원(서기), FAO 관계자 등 5인
- 면담 내용 : FAO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향후 로드맵 논의

□ 어촌 어항 전문가 자문 회의(16:00~18: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주재), 임해주 연구원(서기), 어촌어항 분야 외부 전문가 등 5인
- 자문 내용 : 해외 어촌 어항 개발 협력 및 가나 여성 어업인 역량 강화 사업 협력 논의

□ **FAO 관계자 면담(14:00~15:00)**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주재), 임해주 연구원(서기), Jose Estors Carballo FAO 수산 담당관, Lucia Lopez de Aragon 수산 컨설턴트

- **면담 내용**

· FAO측은 '22년부터 KMI가 FAO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전문가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향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의 국내·외 어항 개발의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



※ 전문가들의 개인 사정 상 다른 면담 일정 취소되어 별건으로 2회 진행

수행결과

□ **인도네시아 관계자 면담(11.26.일))**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주재), 임해주 연구원(서기), Marezo Alfathno Putasa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부장

- **면담 내용**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어항 개발 업무 담당 중인 해당 전문가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워킹 그룹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 주요 인사임.
- Marezo 부장은 부경대 유학 기간 중 부산 감천항 운용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전하며, 향후 감천항과 인도네시아 어항과의 교류 사업 추진 희망 의사를 전달함.
- 또한, 한국의 어촌 어항 개발 협력 사례 공유 요청에 따라 한국 해양수산부가 '23년부터 추진 중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관련 사업 기간, 대상지, 유형 등에 대해 설명함.

□ **비고항 관계자 면담(11.30.목))**

- **참 석 자** : 한덕훈 연구위원(주재), 임해주 연구원(서기), Jose M Pages Sanchez 비고항만청 과장

- **면담 내용**

- (비고항 사례) 비고항은 청색 경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운용하고자 Blue Growth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FAO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 및 항만 분야에서 직면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목표로 업무 추진 중인 점 강조함.
- (가나 사업 사례) KMI는 가나 여성 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임을 공유하며, KMI-스페인 해양수산 협력 연구센터를 설립 후 운영 중임을 설명함. 가나 사업과 FAO 청색 어항 이니셔티브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인 점 설명함.